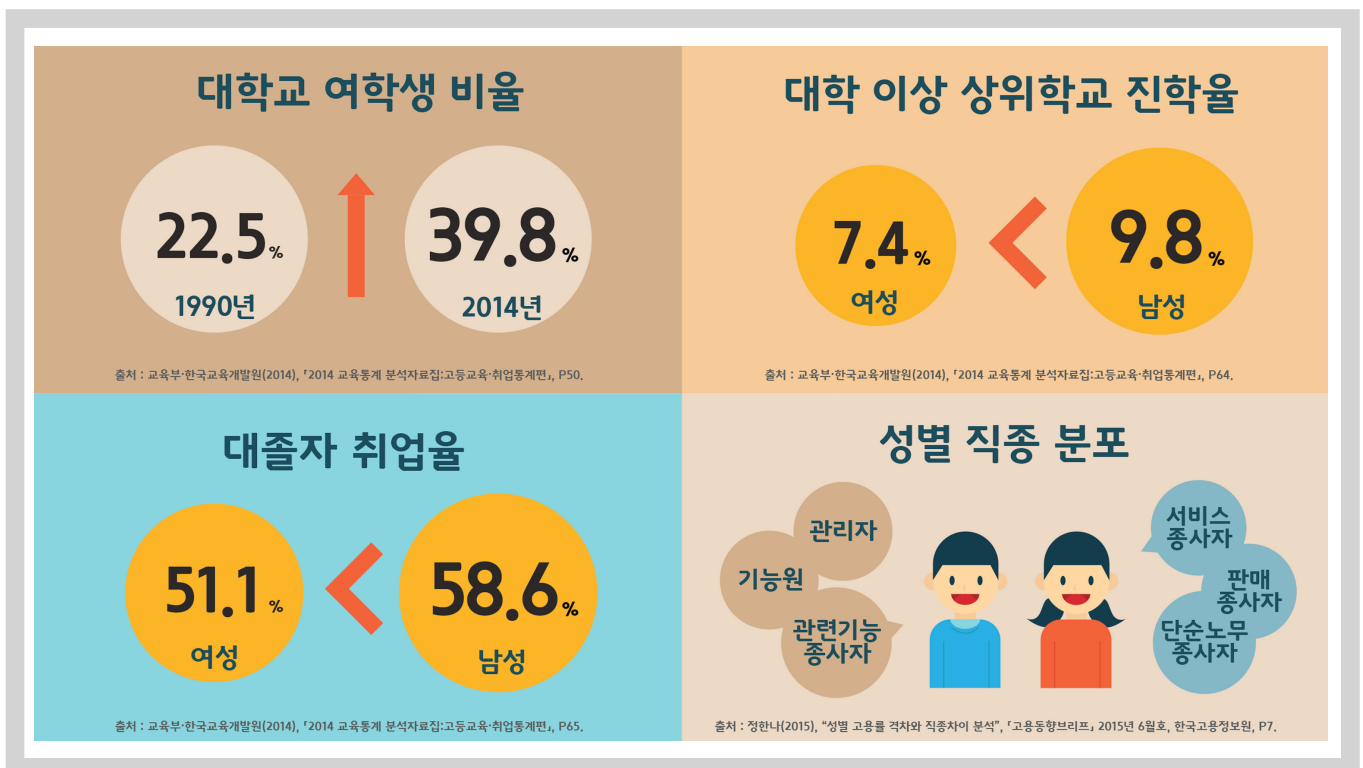


KWDI 이슈페이퍼

수행과제명 정부 부처의 교육관련 사업의 성인지적 분석과 효율성 제고 방안 과제책임자 김영숙 연구위원 (Tel:02-3156-7123 / e-mail:youngkim@kwdimail.re.kr)

교육관련 재정 사업의 성인지적 분석을 통한 효율성 제고 방안*

“ 정부 부처 교육관련 재정사업(고등교육 및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통해 사업 효율성이 어떻게 제고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자 함. ”



* 이 이슈페이퍼는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김영숙 · 김효주 · 장윤선 · 김소정(2016). 정부 부처의 교육관련 사업의 성인지적 분석과 효율성 제고 방안. 서울: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내용		•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부문 사업을 중심으로 성인지예산제도의 성평등 격차 해소 및 효율성 제고 효과 분석	
연구범위		• 정부 기능별 분류 + 자체 식별한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사업	
목차		연구내용	
II 교육 분야 예산사업 심층 분석	1 성평등 이슈 및 현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분야 성평등 이슈 및 현황 분석 • 최근년도 성인지에·결산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분석 • 분석대상: 2016년도 성인지예산서, 2014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p>문헌연구</p> <p>양적연구</p>
	2 예산 지출의 효율성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사업자율평가를 활용한 교육 분야 재정사업의 내용 및 효율성 분석 • 분석대상: 2013~2015년도 평가 결과 	양적연구
III 교육 분야 예산사업 사례 분석	1 초점집단인터뷰 결과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관련 정책 및 사업의 주요 이슈 파악 • 사례선정 	공무원FGI
	2 사례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통해 교육분야 재정사업의 성평등 이슈 및 현황/예산 지출의 효율성 분석 	문헌연구 심층면접
IV 결론		• 요약 및 시사점	

1. 배경 및 문제점

**현재 성인지에·결산
과정에서 가장 해결이
시급한 현안은
다음과 같음**

- ④ 성인지예산제도는 양적 성장과 더불어 법·제도적 측면에서 정책기반이 강화되면서 제도로써 선진화되어 있지만,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결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 ④ 이와 같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도의 필요성이 낮은 것처럼 오인되고 있어 제도의 도입 목적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킬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
- ④ 정부예산은 효율성과 성별 형평성 모두에 영향을 미치며, 이 두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 예산사업 평가시 성인지적 접근이 필요함. 정부 예산에 성별 요인을 고려함으로써 형평성 가치를 증대시키는 성인지예산제도는 이 두 가치를 모두 살피볼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음.
- ④ 성인지예산 도입 이후 특정 부문 혹은 사업에 대한 심층연구는 진행된 바가 없음. 이에 특정 분야 성인지예산을 자원배분의 성별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함. 이를 위해 정부예산의 분야별 분류를 활용하여 분야를 구분하고 첫 번째 연구주제로 교육 분야(고등교육과 평생·직업교육 부문)를 선정하여 분석하고자 함.

[표 1]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효율성	최근 5년간 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 사업을 중심으로 연평균 10.56%씩 예산이 빠르게 증가함 ⇒ 사업의 효과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분석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학교교육 중심의 예산편성으로 인해 전체 교육 예산의 12.4%(16년)로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음 ⇒ 평생교육 체계 구축, 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균형있는 교육정책 통합이 필요함
성별 형평성	고등교육 기관으로의 진학률은 여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공분야의 성별 편중 현상이 취업률, 임금 격차 등으로 이어질 때 성별격차가 더욱 확대됨	여성의 능력 및 경력개발과 직접적 연관이 있음

2. 조사 및 분석결과

심층 분석 결과

📍 성별 형평성 측면

- ▶ 성인지예산서 상에 교육 분야의 대상자 및 수혜자의 여성비율이 전체 평균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고등교육의 경우 매우 낮게 나타남.
- ▶ 성인지결산서 상의 교육 분야의 성과목표 달성률을 살펴보면 고등교육 부문이 62.5%로 전체 평균보다 10%p 낮게 나타남.
-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고등교육과 평생·직업교육은 사업이 지원하는 전공 분야의 성별분포가 사업 수혜격차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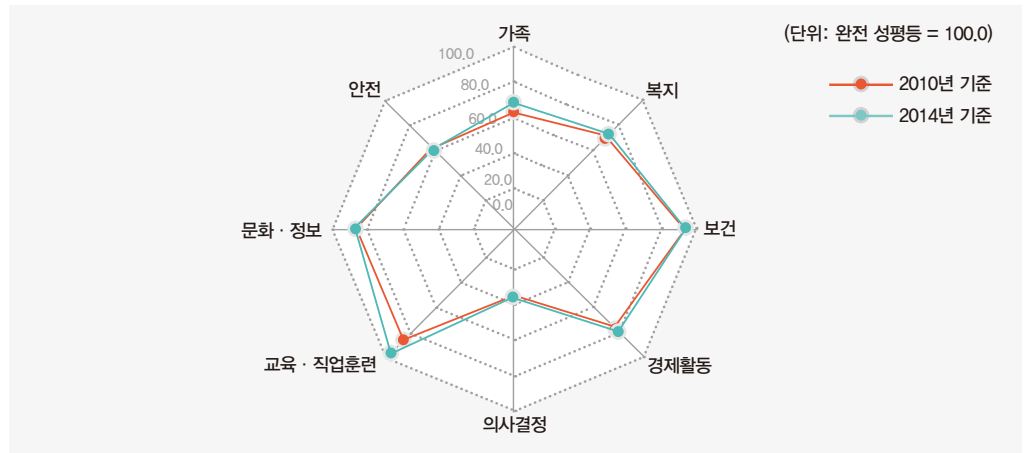
📍 예산 지출의 효율성 측면

- ▶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고등교육의 저조한 평가결과가 전체 교육 분야 결과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교육 분야의 경우 성인지예산서나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작성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사업의 효율성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사례 분석 결과

- 📍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분야별 성평등지수 중 '교육·직업훈련' 분야가 96.3(완전 성평등: 100.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차별적 요인들이 감소하여 양적 측면의 성평등은 달성된 듯 보이지만, 교육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성 불평등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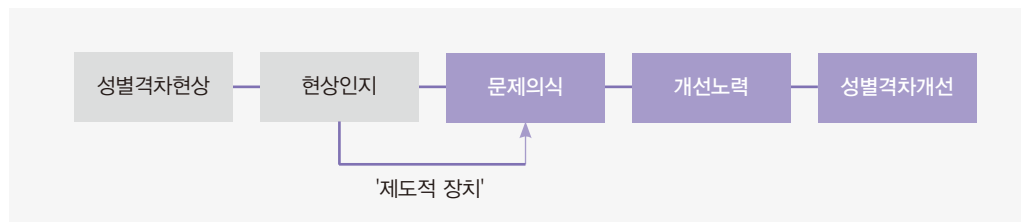
[그림 1] 국가성평등지수의 수준 변화 추이: 분야별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



자료: 여성가족부(2016:10)

- ▶ 고등교육: 심각한 전공 분야에 따른 성별 격차 →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로 연계 → 여성의 임신·육아 등 경력단절로 인한 이중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 평생·직업교육: 사업의 대상자나 운영 프로그램, 과정 등에 따라 성별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현재 사업담당자들은 '현상인지'단계에는 도달했지만, 이를 문제로 받아들이고 개선하기 위한 시작단계인 '문제의식'단계로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어 성별 격차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2] 교육 분야 예산사업 사업담당자 인식



📍 본 연구는 성인지예산제도가 사업담당자로 하여금 성별 요인을 고려하여 담당 사업의 성인지적 접근 가능 방법을 고민하고 성별 격차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고민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두 단계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써 가능할 수 있다고 봄.

- ▶ 사례를 통해 살펴본 결과, '전체대상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성별 전공분리현상으로 인해 사업의 모집단부터 성별 격차가 크다는 것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수 집단을 고려한 제도적·환경적 고려가 필요함.
 -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가능한 많이 발굴하여 성인지예산서 작성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이 성평등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인지시켜줄 필요도 있음.
 -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사업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정책 개발이 필요한 사업으로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개인연구지원', '창의적 인재육성', '산학연계형 산업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제시하였음.

▶ ‘여성대상사업’은 사업의 설계는 현재의 성 불평등 현상에 초점을 두고 시작되었지만 그 원인이나 결과를 함께 볼 때 결국은 성별 전공분리현상, 경력단절 현상과 함께 접근해야 함을 알 수 있었음.

■ 따라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의 규모 확대를 기반으로 접근 범위나 주요 대상자를 넓히는 것이 여성인재 양성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임.

[표 2] 교육 분야 성평등 문제 접근방향

유형	1. 전체대상사업	2. 여성대상사업
접근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적/구조적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의 성 불평등 문제 발결 관련 사업담당자에게 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 수준의 성인지예산 배분 부족 성인지예산 규모 확대 필요

📍 우리나라 고등교육 분야의 성평등 이슈 및 현황

[표 3]

	양적 측면	질적 측면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교 여학생 비율은 22.5%(’90년)→39.8(’14년)로 증가함 ⇒ 성별 격차 감소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이상 상위학교 진학률은 여성 7.4%, 남성 9.8%(’14년) ⇒ 여전히 성별 격차가 존재함
	<p style="text-align: center;">교육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문·교육계열의 경우 여성 비율(54.9%, 57.7%)이 전체 평균(39.8%)보다 높음 공학계열의 여성 비율(16.1%)은 전체 평균보다 낮음 ⇒ 교과목 및 전공 선택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존재함 	<p style="text-align: center;">교육 환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장이나 교감 등 학교조직의 리더나 장학관, 연구관 등 교육전문직의 경우 남성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여전히 성별 차이가 존재함
고용	<p style="text-align: center;">취업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졸업자 중 여성의 취업률(51.1%)은 남성(58.6%)보다 낮게 나타남 계열별로 살펴봐도 교육계열(여성 50.2%, 남성 45.7%)을 제외하면 남성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p style="text-align: center;">직종분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성 분포가 높은 직종은 ‘관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임 여성은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p style="text-align: center;">전공일치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공계열별 일자리 진출분야를 살펴보면, 전공이 일치한다는 응답은 의학계열(69.1%), 교육계열(68.8%), 공학계열(49.3%)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문계열이 유일하게 30%대의 낮은 응답 비율을 나타냄 ⇒ 상대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은 인문계열의 전공 불일치가 가장 심한 것을 알 수 있음 	<p style="text-align: center;">임금격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공일치 여부와 관계없이 남성의 임금이 여성에 비해 4년제 대학은 50만원 이상, 전문대학은 60만원 이상의 격차를 보이며, 대학 유형과 관계없이 전공일치 취업자의 임금수준이 전공 불일치 취업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상대임금 수준은 남성(109%)이 여성(106%)에 비해 높게 나타남

3. 정책제언

구체적인 정책방향 및 과제

- ④ 성별 형평성 측면에서는 성인지예산서의 교육 분야 대상자 및 수혜자의 여성비율과 특히 고등교육의 대상자 여성비율이 낮게 나타났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서는 고등교육 및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경우 사업이 지원하는 전공 및 직종의 성별분포가 사업 수혜 격차의 근본적 원인으로 나타났음.
 - ▶ 이로 부터 교육 대상자의 전공 분야별 성별 격차현상에 대한 이해 없이는 근본적 개선안 도출이 어려움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곧 교육 분야 사업 대상자 선정 단계에서부터 여성 소외에 대한 구조에 대한 이해 및 원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교육 분야 성별 불균형이 개선될 수 있음을 시사함.
- ④ 예산 지출의 효율성 측면에서 다른 분야 사업 특성을 통제한 이후에도 성인지예산서나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작성한 교육 분야 사업의 효율성은 이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를 보여줌.
- ④ FGI 결과, 대부분의 사업 담당자들은 담당 사업의 성 불평등 요인을 인식하는 ‘현상인지’단계에는 도달했지만, 이를 문제가 아닌 단순한 사실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문제의식’ 단계로 연결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④ 사례 분석 결과 성인지예산제도가 ‘현상인지’단계와 ‘문제의식’단계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곧 성인지예산제도가 의도하는 효과라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 통해 사업의 효율성도 자연스럽게 증대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음.

4. 기대효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성인지예산서 작성 등을 통해 해당 사업이 성평등 이슈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인지시켜줄 필요가 있으며, 교육 분야의 성불평등 개선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표 4] 성인지예산 분석이 필요한 사업 예시

부처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선정근거
교육부	대학시간강사 처우개선 지원	대학시간강사 처우개선	자문
	평생학습 기반구축	평생학습진흥 지원	자문/문헌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자문
	창의적인재육성	창의적인재육성	문헌
미래창조과학부	산학연협력 활성화 지원	산학연협력 활성화지원(R&D)	문헌
	창의적인재육성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기반구축(R&D)	문헌

주관부처: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관계부처: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